

“김하성, 팬들 감탄에 부응하는 플레이하고 있다”

김하성(사진)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로 거둬나가고 있다.



리본'은 “올해 많은 샌디에이고 팬들이 ‘하성 킴’을 외친다. 단순한 감탄이 아닌 성가 수준”이라며 “김하성도 팬들의 감탄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김하성의 활약을 조명했다.

김하성은 이날 현재 올해 벌써 119경기에 나섰고 104안타 7홈런 49타점 45득점 9도루 타율 0.257 OPS 0.715를 기록 중이다.

수비에서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호수비 퍼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본’은 “김하성의 종합 경기력은 유격수에서 3위에 해당한다.”라며 “타티스 주니어가 내년 시즌 초반 팀에 합류할 때가 중견수로 출전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보다 유격수에 머물기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김하성의 성장을 극찬했다.

사진=pressdemocrat.com

지난 31일 ‘마이테일리’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후 시행착오를 겪었다. 데뷔 초반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볼에 고전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기회는 줄어들었고, 117경기에서 54안타 8홈런 34타점 6도루 타율 0.202 OPS 0.62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전 유격수 ‘옛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손목 골절 부상에 이어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틈에 이제는 주전 자리를 완전히 꿰찬 모습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최대 언론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

매길로이가 김주형을 떠올린 이유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사진)가 세 번째 페덱스컵을 제패하면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넘어섰다.

매길로이는 지난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끝난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함께 21언더파로 스코티 셰플러(미국), 임성재(이상 20언더파)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특히 매길로이는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페덱스컵을 제패하면서 타이거 우즈(2007·2009년)를 제치고 최다 우승자로 기록됐다.

매길로이는 이번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랭킹 7위에 올라 1위 셰플러(10언더파)에 6타 뒤진 채로 시작했다. 심지어 1라운드 1번 홀(파4)에선 티샷 실수로 벌타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면서 힘겹게 시작했다. 이어 2번 홀(파3)에서도 보기를 적어내 셰플러와 타수 차가 10타 차까지 벌어졌다.

매길로이는 경기 후 이번 대회 초반 상황에서 정규 시즌 최종전 원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주형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초반 상황이 험겨웠지만 자연스럽게 난 원팀 챔피언십에서 퀘드러플 보기로 시작해 우승한 톰킴(김주형의 영어 이름)을 생각했다.”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김주형이 ‘대스타’ 매길로이에 영감을 준 셈이다.

사진=washingtonpost.com

벤투 감독, 이강인에게 카타르행 기회 줄까

월드컵 최종명단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강인(21, 마요르카, 사진)이 생애 첫 월드컵 출전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명단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이강인을 데려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문제는 벤투 감독의 철학이 워낙 확고하다는 점이다. 벤투 감독은 지난해 3월 한일전서 0-3으로 완패한 이후 이강인을 뽑지 않고 있다. 당시 벤투는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쓰는 파격적인 전술을 썼다가 실패했다.

지난 31일 ‘OSEN’에 따르면 올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확실한 공격자원으로 자리잡았다. 이강인은 3라운드까지 모두 선발로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라리가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스페인 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이미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을 중심으로 선발공격진이 확고하다. 다만 킬패스 한 방으로 공격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이강인은 조커로서 가치가 있다. 더구나 월드컵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달 한국에서 코스타리카(23일), 카메룬(27일)과 두 차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에 임한다. 기존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벤투 감독의 성향상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footballist.co.kr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